

KIA '원정+토요일' 징크스 탈출하라

씩쓸이 패 등 5승 12패·역전패 6번·토요일 3전 전패

오늘부터 대구서 삼성... 15일부터 고척서 넥센과 만나



KIA 타이거즈가 본격적인 순위 싸움을 위해 '원정+토요일' 약점 깨기에 나선다.

주중 두산 베어스와 안방에서 대결했던 KIA가 잠시 챔피언스필드를 비운다. 11일부터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 라이

온즈와 주말 3연전을 갖는 KIA는 이후 고척으로 올라가 15일부터 넥센 히어로즈와 상대한다.

먼 길을 떠나는 KIA에 '원정 승률 높이기'라는 숙제가 주어졌다.

올 시즌 KIA는 원정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선 원정길의 성적표는 5승 12패로 승률이 0.294에 불과하다.

바로 한 경기가 취소되면서 1승 1패를

주요받은 문학 SK전 제외하고는 모든 원정시리즈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시즌 첫 원정이었던 잠실 LG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했던 KIA는 대전 원정에서 한화 이글스에 싹쓸이 3연패를 당했고 이후 잠실(두산), 수원, 사직에서 모두 루징시리즈를 기록하고 돌아왔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도 좋지 못했다. 원정 12패 중 6개가 역전패였고, 이 중 두 경기는 끝내기 패를 당하고 싹쓸이 돌아왔다.

'원정'이라는 조건에 '토요일'이 더해지면 승률이 '0'으로 떨어진다.

올 시즌 KIA는 토요일 경기에서 2승 4패를 수확하면서, 가장 낮은 승률(0.333)

을 보인다. 특히 원정 토요일 경기에서는 3전 전패를 당했다.

양현종(LG전 6.1이닝 6실점), 임기영(두산전 5이닝 4실점), 팻딘(kt전 6이닝 5실점)이 모두 패전 투수가 됐다. 원정 토요일 경기에서 기록된 세 선발의 평균자책점은 7.79. 올 시즌 KIA 선발진 평균자책점은 4.60보다 훨씬 높다.

토요일 원정 전패의 부진을 끊어내는 역할은 헥터가 맡게 됐다.

지난 5일 NC와의 홈경기에서 복귀 후 3경기 만에 승리투수가 된 임기영이 11일 삼성 원정의 스타트를 끊고, 역시 NC전에서 한 달 만에 3승에 성공한 헥터가 12일 '원정+토요일' 징크스 탈출에 앞장선다.

그리고 로테이션 변경 없이 양현종이 그대로 삼성 원정 마지막 경기를 책임진다.

KIA는 양현종이 두 경기 연속 완투를 기록하는 등 최근 부담이 많았던 만큼 일요일 선발 교체를 검토했다. 하지만 양현종이 8일 등판에서 98개로 투구수를 끊었고,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괜찮다'는 보고가 올라오면서 원래 순서대로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하게 됐다.

양현종은 일요일 강세 잇기에 도전한다. 올 시즌 KIA는 일요일에 4승 2패(승률 0.667)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KIA의 원투펀치가 토요일 원정 무승을 끊고 일요일 강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멍 투성이 나지완 "사구가 무서워요" 임창용 "야구, 5년은 더 할 수 있다"

덕아웃 T 특특

▲무서워요 = 사(死)구에 올상짓는 나지완이다. 타자들에게 몸에 맞는 볼은 숙명이다. 하지만 나지완에게는 간절하게 피하고 싶은 운명이다. 9일 현재 통산 145개의 사구로 타이거즈에서 가장 많은 공을 맞은 선수로 기록된 나지완은 올 시즌에도 10차례 사구에 올랐다. 9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도 두 번이나 사구로 나가는 등 나지

완은 7개의 박석민(NC)에 앞서 원치 않은 사구 1위 자리에 올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즌 내내 멍투성이라는 게 나지완의 설명. "괜찮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지완은 "한번 맞아보실래요?"라면서 올상을 지었다. 나지완은 "아프다. 무섭다"면서도 "상대가 몸쪽 승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많이 맞는다. 어쩔 수 없다"고 타석에 몰려설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각오를 이야기했다.

▲5년은 더 할 수 있어요 = 타이거즈의

최고참 임창용이 10일 '타자 전향'이라는 깜짝 선언을 했다. 9일 KIA와 두산의 경기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다. 지명타자로 나선 나지완이 좌익수로 들어가면서 투수로 들어간 황인준이 타석에서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때 덕아웃에서 장갑을 끼고 배트를 들고 있던 임창용의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방망이가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임창용은 "내년에는 타자로 전향할 생각이다. 5년은 야구 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람들이 "학고 다닐 때는 3루수를 맡았다. 어깨가 강했다"고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열정은 후배를 못지않은 야수 최고참이다. 10일 두산과의 경기에 앞서

수비 훈련에 매진한 정성훈. 부지런히 3루를 뛰어다니는 정성훈이지만 훈련이 끝난 뒤에는 허리를 붙잡고 "아이고 허리아"를 연발하며 덕아웃으로 들어왔다. "몸을 너무 혹사 한다"는 고영득 트레이너 코치의 이야기에 정성훈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라면서 웃었다. 그리고 다시 "아이고 허리아"를 말하며 리커룸으로 향했다.

▲아 재가 유승철이구나 = 그라운드 안팎에서 김기태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은 고졸 2년 차 '중고 신인' 유승철이다. 10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김기태 감독은 '유승철의 장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 감독은 "심적인 부분이 좋다. 자신감이 넘친다"고 이야기한 뒤 "팬 페스티벌 행사에서도 남달랐다. 그때 (유승철의 공연을) 보면서 '아 재가 유승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

다. 얼굴과 이름을 한 번에 외웠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또 김 감독은 "자신 있게 공을 던진다. 그러다가 승진도 하는 것이다"면서 마운드의 새 활력소 유승철에 좋은 점수를 쳤다.

▲광장히 감사하다 = 9일 KIA는 선발 한승혁이 일찍 흔들리면서 7-13패를 기록했다. 전날 영봉패를 당했던 두산 타선이 폭발하면서 일찍 흐름이 기울었던 경기였지만 수확은 있었다. 7회 팀의 네 번째 투수로 올라온 황인준이 28개의 공으로 3이닝을 막아주면서 불펜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김기태 감독은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다. 잘 던져줘서 엔트리 변동도 안 되고 팀에 많은 도움이 됐다. 공을 던지는 릴리스 포인트가 좋고 부드럽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



나, 클레이코트 달인이야

나달 무투아 마드리드오픈 2회전 승리... 클레이코트 20연승·48세트 연속 무패

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무투아 마드리드오픈 단식 2회전에서 세계랭킹 1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프랑스의 기엘 몽피스(41위)에게 공을 보내고 있다. 이날 나달은 몽피스를 2-0(6-3 6-1)으로 완파하고 클레이코트 대회 20연승, 48세트 연속 승리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이 클레이코트 20연승, 48세트 연속 승리 기록을 이어갔다. 나달은 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무투아 마드리드오픈(총상금 620만860유로) 대회 5일째 단식 2회전에서 기엘 몽피스

(41위·프랑스)를 2-0(6-3 6-1)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나달은 지난해 5월 로마 마스터스 8강에서 도미니크 팀(7위·오스트리아)에게 0-2(4-6 3-6)로 패한 이후 1년간 클레이코트 대회 20연승, 48세트 연속 승리

행진을 계속했다. 클레이코트 연속 세트 승리 종전 기록인 기예르모 코리아(아르헨티나)의 35세트 연속 승리(2004년)를 일찌감치 뛰어넘은 나달은 이제 존 매켄로의 기록 경신도 눈앞에 뒀다. 이는 특정 코트 연속 세트 승리

기록으로 매켄로는 1984년에 실내경기에서 주로 쓰이는 카펫 코트에서 49세트 연속 승리를 달성했다.

나달은 디에고 슈바르츠만(16위·아르헨티나)과 3회전 경기에서 1세트를 따내면 매켄로의 기록과 동률을 이루고, 세트

스코어 2-0으로 이기면 사상 최초로 특정 코트 50세트 연속 승리 기록을 세운다.

한편 노바크 조코비치(12위·세르비아)는 2회전에서 카일 에드먼드(22위·영국)에게 1-2(3-6 6-2 3-6)로 져 탈락했다.

/연합뉴스

뉴욕 메츠 4번타자 부르스 스윙 한 번 못하고 아웃

왜?

'부정 타순'에 희생 당해

1회초 2사 2루, 뉴욕 메츠 4번타자 제이 브루스가 스윙 한 번 하지 못하고 '아웃 판정'을 받았다. 브루스는 '부정 타순'의 희생양이었다.

메츠는 10일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을 잘못 제출하는 실수를 범했다.

마키 캘러웨이 감독은 1번 브랜던 니모, 2번 월터 플로레스, 3번 아스트루발 카브레라로 라인업을 구성하려 했다. 덕아웃에 붙인 선발 라인업 표에는 이렇게 적었지만 심판진에 제출한 '정식 오더'는 달랐다. 2번 카브레라, 3번 플로레스 순이었다.

신시내티는 이를 빠르게 파악했다. 니모가 삼진으로 물러나고, 플로레스가 삼진을 당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신시내티는 카브레라가 좌익수 쪽 2루타를 친 뒤 승격되었다.

짐 리글먼 신시내티 감독은 메츠 4번 브루스가 타석에 들어서자 심판에게 '부정 타순'을 지적했다. 심판진은 이를 받아들여 공수 교대를 선언했다. 부정 타순으로 인해 아웃을 선언할 때는 현재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범타 기록'을 짊어진다.

/연합뉴스

사라포바

'앙숙'에 설욕

무투아 마드리드오픈 8강행

마리아 사라포바(52위·러시아)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무투아 마드리드오픈(총상금 668만5828 유로) 8강에 진출했다.

사라포바는 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단식 3회전에서 크리스티나 플라데노비치(22위·프랑스)를 2-0(6-3 6-4)으로 제압했다.

올해 1월 선전 오픈 4강에 오른 이후 약 4개월 만에 투어 대회 8강에 진출한 사라포바는 키키 베르텐스(20위·네덜란드)와 준결승행 티켓을 다툰다. 사라포바와 플라데노비치의 경기는 불편한 사이인 선수들의 대결로 관심이 쏠렸다.

사라포바가 2016년 1월 호주오픈에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해 4월 플라데노비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라포바를 맹비난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오승환 1탈삼진 무실점

공 7개로 1이닝 막아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임시 마무리투수 후보로 부상한 오승환(36)이 세이브 상황에 등판하지는 않았지만, 1이닝을 공 7개로 완벽히 틀어막는 위력적인 투구를 뽐냈다.

오승환은 10일 열린 메이저리그 홈 경기 시애틀 매리너스전에서 1-2로 밀린 6회초에 등판, 1이닝 동안 안타를 내주지 않고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선발투수 하이메 가르시아를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7개의 공으로 삼자범퇴 처리했다.

첫 상대 라이언 힐리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았고, 마이크 주니노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어 기예르모 에레디아를 초구에 3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1.76에서 1.65로 더 내려갔다.

토론토는 현재 마무리투수 공백 상태다. 기존 마무리 로베르토 오수나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전열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